



3면

"의원 정책보좌관제 만들 것"

전주매일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음 4월 28일) 제35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글로벌 금융서비스사 BNY멜론

전주사무소 확장 이전

BNY멜론자산운용부문 등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 새 동지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강화



3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관인 'BNY멜론'과 'BNY멜론자산운용부문'의 전주사무소 확장 이전 개소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도니 샴수딘(Doni Shamsuddin) BNY멜론자산운용부문 아시아태평양 CEO, 로한 싱(Rohan Singh) BNY멜론 공격기반 수탁총괄, 박현주 BNY멜론 한국대표, 방유진 BNY멜론투자자문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전주사무소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관 BNY멜론과 BNY멜론자산운용부문이 3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로 사무소를 이전했다.

BNY멜론은 이날 도니 샴수딘(Doni Shamsuddin) BNY멜론자산운용부문 아시아태평양 CEO, 로한 싱(Rohan Singh) BNY멜론 공격기반 수탁총괄, 박현주 BNY멜론 한국대표, 방유진 BNY멜론투자자문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전주사무소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BNY멜론은 2019년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전북에 전주사무소를 열었다. BNY멜론자산운용부문 또한 지난해 5월 전주연락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고, 전북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선도하는 BNY멜론의 전주사무소 이전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자산운용사의 근무여건을 살피고 지원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2027년 완공 예정인

전북금융센터를 비롯해 관련 업무 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 전북자치도가 명실상부 국제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수딘 BNY멜론자산운용부문 아시아태평양 CEO는 "BNY멜론 창립 240주년을 맞이한 올해, BNY멜론의 전주사무소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꾸준히 협력해 전북 지역의 금융서비스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BNY멜론은 세계 투자 가능 자산의 약 20%에 관여하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운

용·보호하는 데 있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세계 자본시장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BNY멜론은 지난 3월 31일 기준, 약 48조8,000억 달러의 수탁고 및 자산을 관리하고 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중이다.

이번에 개설된 BNY 멜론자산운용 전주사무소에는 2명이 근무하게 되며 자산운용 담당과 금융업무를 맡아 근무하게 된다.

한편 전주 혁신도시에는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과 SSBT 은행이 사무소를 개설해 전북이 국제 금융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김예진씨가 영예의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김예진씨, 전주대사습 판소리 명창 '장원'

'춘향가 중 초경이경' 대목 열창... 대통령상 수상
농악 및 고을영무농악단 년설 등 부문별 장원자 배출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인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김예진씨가 영예의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판소리 '춘향가 중 초경이경' 대목을 열창한 김예진씨가 장원을 차지해 대통령상과 함께 국악계 최고 상금인 7,0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본선대회에서는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김예진씨를 포함해 각 부문별 장원자가 배출됐다.

부문별 장원자는 △농악부 빛고를 영무장농악단 년설(국회의장상) △삼문명인부 김미복(국무총리상) △민요 명인부 전병훈(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가야금명창부 명인부 이은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기악부 손세영(문화방송사장상) △무용 일반부 임정우(전주시장상)

△판소리일반부 영경관(전주시장상) △시조부 박향림(문화방송사장상) △고법 일반부 이민후(전주시장상) △판소리 신인부 이월재(전주시장상) △고법 신인부 박운선(전주시장상) △활쏘기부 신용식(전북자치도지사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학생대회에서는 △판소리부 박서연(교육부장관상) △농악부 포천일고등학교 민속반(대상문화재단이사장상) △판악부 위예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현악부 윤혜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무용부 김유진(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고법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민요부 김하미(전북자치도지사상) △가야금명창부 유하영(전북자치도지사상) △시조 초등부 김아린(전북자치도교육감상) △판소리 초등부(고학년) 성유진(전북자치도교육감상) △판소리 초등부(저학

년) 김수별(전북자치도교육감상) 학생이 장원으로 선정됐다.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와 함께 지난달 18일 무용부 대회부터 이달 3일 본선까지 17일 동안 진행됐으며, 국립무형유산원을 비롯하여 전주대사습놀이, 전주향교, 전주시청 강당 등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경연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전국대회는 기존 남성 위주의 활쏘기부를 여성 공수도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수준 높은 대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도 시도됐다.

판소리명창부 장원 김예진씨는 "두 번이나 2등을 해서 장원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실수없이 최선을 다하는 생각으로 출전했다", "다섯 번의 도전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국악계의 큰 기동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홀로그램 산업 육성 '탄력'... 국비 100억 확보

과기부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수행기관 선정

전북자치도가 홀로그램 관련 국비를 확보하면서 도내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모한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홀로그램 기업의 사업화 및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총사업비 200억원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해 홀로그램 산업을 디지털 분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홀로그램 제품·서비스 분야의 사업화 확산 및 실증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4대 전략(만들고, 써보고, 알리고, 키우고), 13개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사업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키엘연구원, 남부캠퍼스,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원광대학교 등이 주요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IMSIL-GUN
임실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